

# 43년만에 다시 찾은 '백제의 미소'

## '마애삼존불' 보존 처리공사 완료... 불교계 "보존대책 마련" 촉구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이하 마애불)이 43년 만에 미소를 찾았다. 보호각 없이 자연광을 받으며 환히 웃는 미소는 고고학자 김원룡 교수가 <한국미의 탐구>에서 '백제의 미소'라 칭송한 그 미소가 분명했다.

마애불은 햇빛이 비쳐야 그림자와 함께 얼굴 윤곽이 제대로 드러난다. 햇빛 각도만큼 다양한 미소가 이때 나타난다.

'백제의 미소'는 햇빛의 각도에 부처님 모습이 감응해 나타나는 빛의 조화다. 마애불의 발견과 보호각 설치, 철거, 복원 공사 등 미소를 잃어버린 43년과 보존에 문제가 없는 지를 살펴왔다.

■보호각 철거 후 복원공사 마쳐 =문화재청(청장 이경무)과 서산시(시장 유상곤)는 마애불의 미소를 되찾으려 2005년 보호각 철거 후 2008년 6월 말까지 긴급 보존 처리 공사를 마쳤다.

1958년 4월 발견된 마애불은 1965년 보호를 명분으로 문화재청이 보호각을 설치하면서 '백제의 미소'를 잃었다.

보호각 설치로 통풍이 어렵고 채광을 막아 마애불에는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등 마애불 훼손이 가속화됐다. 2005년 11월,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서산시는 보호각 벽면을 철거했다.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각 지붕은 남겨 둔 탓에 여전히 햇빛이 불상의 얼굴에 닿지 못했다.

보호각 제거와 함께 2008년 5-6월 동안 마애불 '긴급 보존 처리공사'를 실시했다. 10여년 전부터 마애불에 극심한 백화현상과 누수현상, 곳곳의 균열 부분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보존처리를 했는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1500년 전 조성된 마애삼존불의 미소를 보며 얻은 감동을 고스란히 후대에 전하기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삼존불.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교계 의견 무시한 마애불 보존 대책=마애삼존불이 어렵게 '백제의 미소'를 찾았지만 마애불이 있는 서산 불교계 여론은 반갑지 않은 모양이다.

마애불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보원사 정경 스님은 "서산마애삼존불

킨 것도 문제"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문화관광과 이강열씨는 "마애불에 인위적 손상이 있던 것은 오래전 일"이라 반박했다.

김영근씨(서산시 문화관광과)는 "마애불에 인위적 손상은 없다"고 단정했다. 이들은 "주간에는 직원 이,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어 마애불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인경비 시설을 갖춘 승례문도 방화범 화재로 소실돼 무인경비로 마애불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서산시는 유리막 설치, 마애불 원거리 관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나 수탁사 등 불교계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과제이지만, 성보를 성보답게 지키는 것은 불자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섭·손효선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 법인정사

## "복지불사도 수행의 하나"

7월 6일 청주 중앙공원의 어린시 대종공양 현장.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라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약 200인분의 국수를 삶는 불자들의 손길에는 짜증 하나 섞이지 않았다. 가스렌지 불에 국수를 삶는 건지 뜨거운 햇볕으로 국수를 삶는 건지 분간 안되던 날씨지만, 국수를 삶는 보살들의 일굴에서 부처님 같은 자비로운 미소가 엿보였다.

이날 봉사는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에 위치한 법인정사(주지

불가하던 것이 이제는 50여구가 넘어 하루 100여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직접 배달까지 한다.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자 무아 스님은 "현대 사회는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따뜻한 자비와 사랑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적은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아픔과 고통을 털어주면 생의 희망을 갖게 될 테고, 그것이 새로운



## 2006년부터 대종공양 행사 동참 불우이웃 위한 도시락배달 봉사도

무애가 맡았다. 올해로 벌써 두 번째다. 청주지역 사찰들이 주말마다 돌아가며 이 곳의 대종공양 보살을 맡고 있는데, 법인정사는 2006년부터 꾸준히 이 행사에 동참해 왔다.

이는 "삼독심(三毒心)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의 하나가 보시"라는 무아 스님의 평소 가르침 때문. 스님은 "봉사를 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다 보면 부처님의 참뜻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 왔다.

이런 스님의 사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법인정사의 불우이웃돕기 봉사단체 '복지촌'이다. 복지촌은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 청주 우암·율령·수곡동 등에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행사는 2004년 9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처음 도시락

을 전달할 때만해도 8가구에

자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다. 법인정사는 불·가을엔 어려운 이웃에게 이불을, 김장철에는 김장 담가주기, 추석·설 등 명절에는 백미 전달, 재가 복지활동 등 봉사를 한다. 청주시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법인정사가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무아 스님의 뜻을 잇는 불자들 때문이기도 하다.

무아 스님은 "종교의 역할은 고통받는 인간이 의지할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삶의 고통과 이쁨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으로 열불, 간경, 108배를 말하지만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보시도 수행 중 하나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정성스런 보시행을 쉬지 않을 뜻을 밝혔다.

손효선 기자

## 옥천 대성사의 '특별한 한자 교실'

### 선남선녀 만남으로 부부인연 맺은 김주성씨 강사로 나서

"처음에는 반려자를 만나러 대성사에 방문했고, 오늘은 한문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에 특별한 선생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바로 김주성(44)·이향자(38)씨. 이 두 사람이 특별한 인연이 된 까닭은 뭘까.

김주성·이향자씨는 지난 2006년 '선남선녀 인연 맺기 따뜻한 만남(이하 따뜻한 만남)'을 위해 대성사를 방문했다.

2년이 지난 2008년 그들은 불자로서 혜철 스님과 다시 인연을 맺고 '김주성 선생의 재미있는 한자 교실' 선생님이 되어 대성사를 찾은 것이다.

김주성 씨는 한자 1급 자격 소지자로 인천 간석여중에서 한자

특기적성교육, 주민자치센터와 어머니 교실 등에서 재미있는 한자 교실을 운영해 왔다. 부인 이향자씨는 영동 추풍령 초강초등학교 교사이다.

7월 6일 첫 수업을 시작한 김주성씨는 "2년 전 '따뜻한 만남'에서 평생 함께할 아내를 만나 결혼과 동시에 옥천으로 이사를 했고, 오늘은 선생님과 제자의 인연을 맺기 위해 절에 왔다"며 "아내를 만나게 해 준 고마움과 부처님 제자가 된 감사함을 감기 위해 대성사가 있는 옥천에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자 교실에는 종교를 불문하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참석했다. 첫

수업에 대한 설레임과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학생들은 들뜬 모습이었다.

매주 일요일, 앞으로 3개월 간 대성사에서는 한자 교실이 열린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곳에서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김주성 선생은 "꼭 무엇을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나"며 웃었다.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대성사에 찾아와 인연을 맺는 분들이 많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 대형 선화도 2점 계룡산 회향

### 선화예술원에 전시

250m 대형 선화도가 계룡산에 안착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 보관하던 작품은 7월 3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선화예술원(원장 석주)에서 전시를 시작했다.

7월 7일 법진 스님(마곡사 호심원), 혜철 스님(태고종중앙총보교장), 탤런트 한태일, 박정희 소장(한국무용연구소), 도정자 상인위원(대전학부모협의회)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선화도 전시에 맞춰 이운 회향식도 봉행했다.

선화예술원으로 회향된 선화도는 '2003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개원해 조성한 길이 250m의 대형 선화도로 2173명의 달마 대사가 그려진 그림이다. 2173은 유니버시아드 개최 연도 2003에 참가국 수 170을 합한 것. 이 작품은 그해 대구 국제보상공원 야외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작품은 2003년 1월 궁주문화원 초대전을 준비하던 석주 화백이 대구지하철 화재로 사람들이 불에 타고 아비규련에 빠진 꿈을 꾸고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 작품이 전시되고 일주일 뒤 2월 18일 실제로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발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두 점의 작품을 위해 마련된 회향식에서는 법진 스님의 범패의 식과 박정희 한국무용연구소 소장의 살풀이 공연도 열렸다.

석주 화백은 1980년대에 출가했다가 달마도를 알게 돼 1987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후 그는 달마도를 비롯한 다양한 그림을 그려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수행과 보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날도 행사에 참석한 불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선화도를 그려 주기도 했다.

손효선 기자

www.sookgong.com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관상학 最高의 秘書

면 상 비 금

절찬리 판매중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관상학의 비법수록!! 관상학의 완결편!!

□ 관상학을 배우면?

첫째: 자신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다.  
둘째: 자신과 고개를 차 별되어 마주하게 된다.  
셋째: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개중심의 삼박자를 지향할 수 있게 된다.

面相秘笈

小南天 <史康海> 著 최인영 편역 창간사

4x6판형 / 432쪽 / 값 25,000원

□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 매주 일요일(오전 10:30~13:00) 문의전화 02)929-4646

기업은행 041-055985-02-010 문해성 전화 02)354-8646 창간사 팩스 02)384-864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불영사  
● 법 명 : 원수(김외태)  
● 법 명 : 정수(신영숙)  
● 주 소 : 경남 창원군 영산면 구계리 162번

상기사찰 및 본인은 귀종단의 중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하